

4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8,000회복	포드와 아멕스 등 금융 실물 부문의 실적 안도감이 지수를 견인하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음.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19.23포인트(1.5%) 상승한 8,076.29를 기록했고, S&P500지수는 14.31포인트(1.68%) 올라선 866.23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42.08포인트(2.55%) 뛴 1,694.29로 장을 마쳤음.
소비-주택 지표 안도감	전체 공장 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구재 주문은 지난 3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예상보다 감소폭은 작았음. 미 상무부는 이날 3월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0.8% 감소했다고 밝혔고, 앞서 블룸버그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1.5%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음. 최근 8개월 중 7개월간 내구재 주문은 감소했음. 내구재 주문이 깜짝 증가세를 보인 지난 2월의 경우 증가폭이 3.5%에서 2.1%로 수정되었음. 상무부는 3월 신규주택매매가 전달보다 0.6% 감소한 연율 35만 6,000채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앞서 2월 신규주택판매는 4.7% 증가한 33만 7,000채에서 8.2% 늘어난 35만 8,000채로 수정 발표되었음.
골드만삭스 "한국 올 GDP성장률 -4.5→-3.0%상향"	골드만삭스는 27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3.0%로 높이고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과 수출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수출에 비해 개인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실제 골드만삭스는 소비를 -2.0%에서 -1.7%로, 설비투자를 -18.7%에서 -18.2%로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수출은 -15.1%에서 -10.5%로 크게 높였음.
10대그룹 시총 올해 80조 증가..현대차 상승폭 1위	27일 한국거래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상위 10개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과 주가등락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대그룹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기준 380조223억원으로 지난해말 300조8,082억원 보다 26.33% 늘어났음. 시장 전체대비 10대그룹의 시총 비중은 48.35%로 전년말 48.28%보다 0.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 가운데 현대차(66,700원 0.0%)그룹의 시총은 전년말 대비 57.44% 증가해 10대그룹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음.
IMF간부 "亞 국가들 내수기반 다져야"	칼파나 코차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6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음.

제목	주요 내용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로 좌파 첫 집권	유럽국 중 금융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이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아이슬란드에 첫 좌파 정부가 집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 아이슬란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총선 개표가 97.9% 가량 진행된 가운데 사회민주당과 녹색운동으로 구성된 좌파 연합이 총 63석 가운데 34석을 획득해 과반을 차지.
IMF "G20 경기부양 목표 GDP 2%로 인상"	IMF는 이날 글로벌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G20 국가들이 감세와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 규모를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 내년에는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표치를 수정 제시. IMF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부양책을 각각 올해 GDP의 1.8%, 내년 1.3%로 추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